

취임 1주년 맞은 나상만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

# “지역 연극계와 상생·발전 기틀 마련”

지역 연출가 양성 앞장  
1년 단위 상임단원제 절실  
‘명키열전’ ‘달빛결혼식’  
브랜드공연화 할 계획



복지나 활동 무대를 넓히는 데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연출가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나 감독은 강조했다.

“지난 1년간 시립극단과 함께 작품을 한 배우들의 개런티를 현실화하고 극단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잘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배우는 물론, 지역 연출가도 함께 키우야 할 때입니다. 젊은 연출가들을 대상으로 작품 공모를 진행하고, 그들에게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소품 위주로 2-3개의 작품을 페스티벌 형태로 발표할 수 있는 ‘지역극단 상생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 감독은 ‘광주형 길러온트츠’ 개발을 위해 연극 ‘명키열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작품은 러시아 국립 수유킨 연극대학 창설 100주년 기념공연으로 기획된 작품으로, 나 감독이 직접 쓰고 연출한 작품이다. 전 세계 문학작품 속 주인공 원숭이들을 집결시켜 원숭이를 통해 인간의 꿈과 상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다.

“‘명키열전’은 연극적 요소는 물론 아크로바틱, 무술, 타악, 마술, 춤과 경극 등이 한데 어우러져 남녀노소 뿐 아니라 외국인도 부담없이 관람 가능한 작품입니다. 최근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극 ‘달빛결혼식’도 광주 브랜드공연을 목표로 기획됐어요. 본격적으로 ‘광주’를 다룬 작품으로, 앞으로 수 정과정을 거쳐 내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에 맞춰 상설공연으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정겨울기자

으로 단체를 꾸려가고 있고, 매회 객원을 초청해 공연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라면 1년 단위 계약 체결을 통해 최소 10명의 비상임단원을 두고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광주연극의 불을 일으키기 위해 연극인들의



지난해 선보였던 연극 ‘명키열전’ 공연 장면.

/광주시립극단 제공

## ‘100년에서 100년으로’

광주국제교류센터, 3·1운동 100주년 기념  
‘오월음악회’ 26일 ACC 예술극장 극장2

광주국제교류센터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연다.

광주국제교류센터는 오는 26일 오후 5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제17회 ‘오월음악회’를 마련한다. 이날 음악회는 광주국제교류센터와 ACC, 아시아문화원(ACI)이 주최하고 광주시가 후원한다. 이날 음악회는 ‘100년에서 100년으로’를 주제로 우

리나라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과 세계 각국에서 각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평화의 메시지를 내·외국인 출연진들의 아름다운 선율과 목소리로 전한다.

또한 광주시민들의 모임 ‘GIC 시민합창단’이 ‘주 너를 지키시고’, ‘로몬드 호숫가’, ‘경복궁타령’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곡을 노래하고 모든 출연자들과 청중들이 ‘남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공연의 피날레

를 장식한다.

한편, 광주국제교류센터는 2003년부터 매년 ‘오월음악회’를 개최해 왔다. 광주국제교류센터 음악위원회 ‘GIC클라비레’를 중심으로 지역 음악인들과 외국인 음악인들, ‘GIC 시민합창단’ 등이 제능 기부로 함께 출연한다.

전석 무료이며 입장권 예약은 광주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 /정겨울기자

## ‘그림 읽어주는 남자의 미술기행’

25일 광주시립미술관 토요문화이벤트

광주시립미술관은 토요문화이벤트로 ‘그림 읽어주는 남자의 미술기행’을 5월, 7월, 9월, 11월 네 차례에 걸쳐 마지막 주 토요일 3-5시 미술관 대강당에서 마련한다.

“그림 읽어주는 남자” 이창용(사진) 강사와 함께 떠나게 되는 미술기행은 ▲오는 25일 여성에게 자유를 허락하라, 가브리엘 샤넬, ▲7월 27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1부 라파엘로 산치오 그리고 마르코 사갈’ ▲9월 28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2부 오귀스트 로댕 그리고 프란시스코 고야’ ▲11월 30일 ‘올부짓는 황소’라는 황소화가 이중섭’ 등 모두 4회이다.

지난해에도 광주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던 그림 읽어주는 남자의 올해 미술기행은 미술사를 넘어 패션디자이너의 예술세계로까지 한 발 더 나아가갈 예정이다.

25일 강의는 20세기 여성 패션의 혁신을 선도한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인 샤넬의 인생과 예술세계를 소개한다. ‘내가 곧 스타일이다’로 알려진 샤넬은 성적인 매력 강조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이전까지의 전 통에서 벗어나 답답한 코르셋이나



장식성 많은 옷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킨 인물이다.

7월과 9월 강의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는 이름으로’라는 주제 아래 ‘라파엘로 산치오와 마르코 사갈’ 그리고 ‘오귀스트 로댕과 프란시스코 고야’ 등 시 대적으로나 미술사적 사조로나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2인의 예술가를 한데 엮어 그 만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된다.

11월 강의에서는 국민화가 이중섭의 굴곡있는 생애와 작품세계를 넘어 패션디자이너의 예술세계로까지 한 발 더 나아가갈 예정이다.

한편, 강의에 나서는 이창용은 로마와 파리 등 주요 미술관 현지 가이드를 거쳐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바티칸 박물관전 큐레이터로 활동했으며 현재 아트 스토리 105 대표이자 미술사전문 강사로 활약 중이다. /정겨울기자

## 세종요양병원서 양석승 힐링콘서트



양석승 한국감성총천&웃음치료연구소장이 힐링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감성총천&웃음치료연구소 양석승(전 광주대 교수) 소장은 오는 24일 오후 2-3시 세종요양병원(광주 동구 천변우로 453)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공연으로 ‘제29회 시와 노래와 유머가 넘치는 양석승 힐링콘서트’를 마련한다.

힐링웃음노래 소통 전문가이며 해피실버문화연구소 원장인 김은희 한국노래감사협회 원장이 진행하며, 금 원장은 ‘노란샤쓰의 사

나이’(한명숙)와 ‘신사랑 고개’(금잔디)를 부른다.

양석승 소장은 ‘갈대의 순정’(박일남), ‘섬마을 선생님’(이미자)을 부르며 유머 및 힐링강의를 한다.

가수 김희순은 ‘어부바’(장윤정), ‘아리랑 연가’(정선화)를 장구를 치며 들려주고 가수 박은은 ‘나야나’(남진)와 ‘너나나나’(진시몬)를, 가수 박경숙은 ‘사랑님’(김용남)과 ‘도련님’(문현주)을 부른다. /정겨울기자

# 전 세대가 함께 떠나는 믿음의 여정

300여년 동안 전해진 위대한 유산

##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수입/배급 CBS

6월 13일 전국 극장 대개봉

**SYNOPSIS**

천국으로 가는 여행자, 당신의 이름은 크리스천!

희망도 기쁨도 없는 ‘멸망도시’에서 살아간 ‘크리스천’, 어느 날 발견한 한 권의 책에서 ‘천국도시’의 존재를 알게 된다.

언제 모르게 책에서 눈을 땄 수 없던 그는 결국,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을 찾아 모두가 만류하는 무모한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뛰어, 크리스천! 천국에 닿을 때까지!”

단체관람 신청 ☎ 062.376.8500 (광주CBS)

facebook.com/cbscinema TALK CBS시네마 전체관람가